

중국경제실

(중국)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4.23

1. 확산 동향

□ 4월 22일 중국 내 신규 확진 10명(해외 유입 6명), 사망 0명

○ 신규 무증상 감염자 27명, 현재 격리 관찰 중인 무증상 감염자 984명

표 1. 중국 일일 감염 현황(4월 22일, 명)

	확진자	사망자	퇴원자	중증
신규	10	0	56	-15
누적	82,798	4,632	77,207	63

주: 누적 중증환자는 현재 입원 중인 환자 수 기준임.

자료: 중국 위건위(http://www.nhc.gov.cn/xcs/yqtb/list_gzbd.shtml)

2. 경제적 영향

□ [소비]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의 올해 1분기 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¹⁾

○ 1분기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은 7.8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 중국 상무부는 방역 대응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3월부터는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도 점차 안정되는 분위기라고 평

– 3월의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은 전년 동월보다 15.8% 감소해, 1~2월 대비 감소폭이 줄어듦.

–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의 3월 온라인판매액은 전년 동월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 온라인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1분기 온라인 상품 판매액은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의 23.6%)

–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폭(4.3%)은 2월(5.2%)보다 낮아졌고, 돼지고기 가격이 7주 연속 하락

○ 또한 감염 사태가 소비에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지만, 중기적으로는 영향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소비진작책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이라 전망

3. 정부 대응

□ [대외무역] 중국정부는 4월 20일 각 지방정부·기관이 운수통로 원활화, 무역 편리화, 수출입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대외무역을 안정화할 것을 촉구²⁾

1) 中国政府网(2020. 4. 20), 「商务部有关负责人谈2020年一季度我国消费市场运行情况」.

- 주요 무역 항로의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요 항운기업들이 역할해 줄 것을 촉구하고, 화물기·중-유럽 화물열차 운행 확대 독려
- 쑤저우 태창항과 상하이로 잇는 철도(太仓港疏港铁路), 난징 룡탄항(龙潭港)의 화물 철도 등 주요 컨테이너항의 철도·수운 연계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촉구
- 상하이항·텐진항 등이 즉시 출고·선적이 가능한 시스템(船边直提·抵港直装, 수출입 화물이 통관 등 절차를 위해 약 2~3일 정도 항구 창고에 보관되는 일이 없이 도착 즉시 수입상에 전달되거나 배에 선적)을 갖춰 물류 효율 높일 것 촉구
- 상하이항·텐진항의 냉동컨테이너 규모를 2019년의 2배로 확대
- 수출입 화물 항구건설비 단계적 면제, 화물 입항비·항구시설 보안비·선박유 오염 손해배상기금 감면
- [금융] 4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영세기업에의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클루시브 금융(普惠金融·영세기업, 농민, 도시저소득층, 빈곤계층, 장애인 및 노인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심사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拨备覆盖率)을 20%p 낮출 것이라 발표³⁾
- 은행 종합평가지표에서 인클루시브 금융 분야 가중치를 10% 이상까지 올려, 각 은행들이 영세기업 신용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함.
- 중소기업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현재의 120~150%에서 100%까지 차츰 낮추기로 함.

4. 미중관계

- 중국은 일부 국가들이 제기하는 코로나19 확산 중국책임론은 중세시대적 모함이라 일컫는 등 반발⁴⁾
- 중국 외교부는 미국 미주리주 정부 등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고 중국은 주권국가로서 미국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것이라 입장 표명
 - 또한 미국에서 첫 발견된 2009년의 신종플루(H1N1), 80년대의 에이즈 및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세계 각국이 미국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거론

2) 中国政府网(2020. 4. 20), 「交通运输部 商务部 海关总署 国家铁路局 中国民用航空局 国家邮政局 中国国家铁路集团有限公司 关于当前更好服务稳外贸工作的通知」.

3) 21世纪经济报道(2020. 4. 22), 「国务院再出两新招 促银行支小助微」.

4) 环球网(2020. 4. 21), 「社评：对中国搞中世纪构陷，图片报一卒当先」；中国经济网(2020. 4. 22), 「美国密苏里州竟因疫情起诉中国 外交部回应」.

- 글로벌타임즈 사설을 통해 우한시 초기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한 봉쇄 당시 각국들이 중국을 조소하는 대신 신속히 대응했다면 대규모 확산을 피했을 것이라 비판하며, 우한시가 확산을 막지 못하고 초반에 바이러스 위험성을 오판한 것에 대해 전세계의 비난을 받는 것은 중세에나 있을 법한 모함이 부활한 것이라 비난
 - △ 트럼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국내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자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제도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 독일 일간지 ‘빌트’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의 원흉이며 독일에 확산된 것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져야한다 보도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비난
 - 중국과 WHO 간, 국내외 학자들 간의 정보교류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 코로나19 발발로부터 1월 20일 사람 간 전염 사례를 발표했을 때까지 시간이 경과했으나 이로 인한 손실은 강력한 봉쇄조치로 보완되었다고 항변
- 중국의 1분기 對미국 무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8.3% 하락하였으며(중국의 전체 무역액은 6.4% 하락), 이는 주로 춘절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에 따른 결과임.⁵⁾
 - 對미국 수출은 4,765.5억 위안(-23.6%), 수입은 1,914.6억 위안(-1.3%)
 - 수출액의 61.6%를 차지하는 기계·전력설비 수출이 24.1% 하락하였고, 노동밀집형 제품 수출이 26.1% 하락
 - 이에 반해 의약재·약품 수출은 6.3% 증가
 - 수입은 전체적으로는 하락하였으나, 미중 무역협상의 영향으로 대두, 돼지고기, 면화 등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농산물 전체 수입액이 1.1배 증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5개 회원사 중 △ 코로나19로 중국 내 산업체인을 해외로 옮길 계획이 없는 곳이 70% △ 공급망을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인 곳은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⁶⁾
 - 기업들은 △ 물류 제약 △ 생산능력 전면 회복의 어려움이 향후 1개월 간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음.
 - 회사 공급망이 3개월 내에 정상화될 것이라 답한 곳은 68%, 3~6개월 내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답한 곳은 96%
 - 25개 응답 기업 모두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이 외자기업에도 동일하게 효과를 주고 있다고 답함.

5) 观察网(2020. 4. 14), 「海关总署:一季度中国进出口总值同比降6.4%,贸易顺差减少80」.

6) 中国新闻网(2020. 4. 17), 「美国商会和普华永道联合调查:在华美企中逾七成称不会迁至海外」.